

I. 서론

현대 사회 문제가 참 다양하며 복잡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의 중심에 공감의 부재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속에서 중요한 답이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곳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감이 있는 혹은 정감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이야기를 교리적으로 설명한 바울은 12장 이후부터는 삶 속에서의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의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가지 교훈의 한 가운데 구원 받은 자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공동체인 가정 교회 안에서의 중요한 교훈으로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공감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II. 본론

1.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 속에서 공감의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히 4:15).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실 때마다 그 사람들을 붙잡고 여기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는 원래 공감의 능력이 존재합니다.

어머니는 갓난아이에게 일분애 한 번씩 무의식적으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1996년에 과학자들은 인간에게 '거울 신경 세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43절에는 조금 특별한 성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통해 자신의 딸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보게 되면 공감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두 구원의 역사를 통해 공감의 능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길 기도합니다.

2.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버림받고, 패배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대인관계를 맺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요구하십니다. 상처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공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

3.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감을 통해 치유의 역사를 펼쳐 가야 합니다.

공감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도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앓던 여인이 치유 됩니다. 무엇보다 야이로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나의 공감을 통해 다른 사람이 치유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감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공감으로 치료하는 것이 신앙이고 공동체이다. 이것이 우리 구역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The rescuing hug, 1995년에 메사츄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태어난 쌍둥이의 기적과 같은 치유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통독

이번 주 통독 말씀

11/30(월)	12/1(화)	12/2(수)	12/3(목)	12/4(금)	-
계 2-5장	계 6-9장	계 10-13장	계 14-17장	계 18-22장	-

QT

이번 주 QT 말씀

11/30(월)	12/1(화)	12/2(수)	12/3(목)	12/4(금)	12/5(토)	12/6(주일)
단 6:15-28	단 7:1-14	단 7:15-28	단 8:1-14	단 8:15-27	단 9:1-14	단 9:15-27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설교를 통하여 새롭게 깨닫거나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씩 나누어 보세요.
2. 나는 가정과 목장,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을 잘 느끼고 있나요?
3. 공감하기 위해 내가 극복해야 할 두려움, 상처 같은 것이 있으면 돌아보고 나누어 보세요.
4. 공감의 은혜가 내 안에서 회복되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세요.